

## 이수광(李睟光)의 베트남, 1597-1598\*

최 병 욱\*\*

### I. 머리말

조선 실학의 선구자라 일컬어지는 이수광(1563-1628)<sup>1)</sup>은 1597년 북경에 사절로 갔다가 거기서 베트남 사신으로 온 풍극관(馮克寬 Phùng Khắc Khoan, 1528-1613)을 만났다. 두 사람은 북경의 옥하관(玉河館)에서 오십여 일 동거하며 교류했다. 한국-베트남 양국의 관계사를 이야기 할 때 이수광과 풍극관이 한 울타리 안에 머물며 시문을 주고받은 사실은 이미 여러 지면 또는 학술회의장에서 소개되어 오고 있다. 일찍이 한국에서는 최상수가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한월협회, 1966)에서 양인의 창화시와 문답록을 번역 소개한 바 있고, 양인의 교류는 베트남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수광의 시문은 풍극관

---

\* 이 연구는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7-361-AM0013)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제2차 한-베트남 역사학 심포지엄(2008, 서울)에서의 발표문(동일 제목)을 보완한 것임.

\*\* 인하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1) 이수광은 총 세 번 북경을 방문했다. 1590년 27살의 나이에 서장관으로 파견되었으며, 1597년과 1610년에 주청사로 다시 북경을 찾았다. 두 번째 방문 때에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를 들여와 최초로 서양학문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자신의 연구와 해외견문을 종합하여 1614년 방대한 백과사전류인 『지봉유설(芝峰類說)』을 출간했다. 사후 아들들이 그의 시문류를 모아 『지봉집(芝峰集)』을 편찬하였다. 서양학문을 소개한 공헌과 특히 『지봉유설』에 보이는 그의 막람한 지식과 실증적 태도 등으로 인해 그의 이름은 조선 실학자 계보의 선두에 두어지고 있다.

을 통해 베트남에 전해져서 널리 읽혀지기도 했으니 말이다. 매년의 만남으로 정기화 되고 있는 한-월 베트남 역사학회 정기 학술 모임 제 1차 회의 (2007년) 때도 여러 발표문에서 양인의 접촉 사례가 등장했다. 발표자 8명 중 3명(Nguyễn Minh Tường, 박희병, Chương Thâu)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언급할 정도로 양국 지식인 교류사에서 이 사건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sup>2)</sup>

그러나 그동안의 양인 교섭은 자료 소개에 그쳤을 뿐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아울러 시문을 주고받은 정서적 교류와 그에 따른 우의 관계에만 관심을 가져 왔다. 필자는 우리의 관심이 양인 교류에 대한 소개 차원이 아니라 분석/연구 단계로 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분석의 대상은 시문뿐만 아니라 『芝峰集』 및 『芝峰類說』에 남겨진 실학자 이수광의 베트남,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다양한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화시문(唱和詩文) 또한 단순한 시문이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격조 높은 보고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4년 한국 베트남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실의 이춘중(李春鍾 Lý Xuân Chung)이 양인의 창화시(唱和詩)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sup>3)</sup> 양국 사신 간 교류 시문에 대한 단순 소개의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가 내용 분석이 시작되었던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러나 매우 초보적이고 개괄적 작업에 그쳤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역사학적 분석도 아니었다. 양국 역사에서 매우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이수광이나 풍극관의 교류

2) 1997년에 베트남 역사학회 주관으로 하노이에서 출판된 자료집에서는 양국 사신들의 만남 및 시문 내용 해설이 충실하게 소개된 바 있다. Hội Khoa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베트남역사과학회), *Người Việt Nam ở Triều Tiên và Mối Giao Lưu Văn Hóa Việt-Triều Trong Lịch Sử* (조선의 베트남인과 역사 속에서의 베트남-조선 문화 교류), Viện Thông Tin Khoa Học Xã Hội, Hanoi, 1997.

3) Lý Xuân Chung, "Về Thơ Văn Xướng Họa Giữa Các Sứ Thần Việt Nam-Hàn Quốc Trong Lịch Sử (베트남-한국 사신 간의 창화 시문에 대하여)," 『한국학과 베트남 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베트남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집, 2004.

는 단순히 양국 간 우의 및 친선을 과시하는 에피소드로서만이 아니라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려질 단계가 되었다.

양국 사절 간 교류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옥하관(玉河館)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북경의 자금성은 베트남인 건축 기술자 응우옌 안(Nguyễn An, 1381-1453)이 감독을 맡았었다.<sup>4)</sup> 그리고 자금성 옆의 외교 사절 숙소는 조선에서 하정사(賀正使)로 파견되었던(1413) 최용소(崔龍蘇, ?-1422)가 건축 감독을 책임졌다.<sup>5)</sup> 중국 중화질서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북경의 핵심 건물 중 황제의 거소는 베트남인이 만들고 그 황제를 황제이게끔 하는 천하 제국(諸國)의 사절 거소는 조선인이 만든 것이다. 옥하관은 한중 관계사로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관계사적 맥락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이수광의 ‘베트남 연구’는 이곳 옥하관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그가 세 번째로 북경에 갔을 때(1611)도 옥하관에 머물면서 유구와 태국에서 온 사절을 만나 두 국가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논구한 바 있다. 그가 『지봉유설(芝峰類說)』 ‘외국’ 조에 남긴 안남, 라오스, 수마트라, 참파, 태국, 캄보디아, 푸난 (Funan), 자바, 말라카 등에 대한 기술과 『지봉집(芝峰集)』<sup>6)</sup>에 실린 태국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옥하관에 체류하는 동안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7)</sup>

4) 명나라가 일시 베트남을 지배했을 때(1407-1427), 수많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끌려갔다. 이중의 한 명이 건축 기술자였던 응우옌 안이었다. 그는 이후 72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사망할 때까지 여러 가지 건축 및 토목 공역을 담당했다.

5) 『江華崔氏世譜』, 江華崔氏大同譜所, 충남연기군조치원, 1997, p. 2; 『英祖實錄』 (<http://sillok.history.go.kr>), 英祖 50년(1774), 5월 10일. 형조판서였던 최용소가 하정사로 출발한 것은 1413년 10월 17일(『太宗實錄』, 26권)인데, 1414년 5월 21일에 그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자격으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양진(楊津, 양화진)에 파견되었다는 기사가 나온다(27권). 이 짧은 기간에 그가 옥하관 공사 전 공정을 감독한 것은 아니었다. 『江華崔氏世譜』에 의하면 그는 공사 감독 도중 쇠못(鐵釘)에 왼쪽 눈을 상해 귀국했다 한다. 훗날 영락제가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화공에게 그리게 했다는(墓誌) 초상화에도 그의 왼쪽 눈은 없다. 조치원 강화 최씨 문중 사당에 보관되어 있던 이 그림의 진본은 십여 년 전 도난당했고 현재는 복제품만 남아 있다.

6) 두 책은 공히 1614년에 출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판본들을 이용하였다. 『芝峰類說』, 경인문화사, 1970; 『芝峰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

박희병은 베트남에 대한 이수광의 글이 “조선 문인과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베트남붐을 일으켰다고 해도 좋을 만큼의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박희병 2007: 123)고 했다. 그렇다면 문인, 지식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켰던 요소는 과연 무엇이었는가가 얘기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이국취향이었던가,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사실적 정보였을까? 이수광의 베트남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조선 실학 전통의 진지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수광의 『芝峯集』에 실려 있는 창화시(唱和詩), 문답(問答), 그리고 창화시 뒤에 실려 있는 에필로그 격인 ‘후(後)’의 내용을 국명과 역사, 물산, 인물 및 풍속 등의 세 항목으로 다시 분류해 정리해 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서 이수광이 얼마나 치밀하게 베트남을 조사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조선의 지식인 사회로 유입되었는가를 가늠해 볼 것이다.

## II. 국명과 역사

이수광이 쓴 9편의 시(율시律詩 8편, 배율排律 1편)에서 베트남의

7) 이수광은 『芝峰類說』에서 ‘제국부(諸國部)’를 두고 그 나라들을 ‘본국(本國 \* 조선),’ ‘외국(外國),’ ‘북로(北虜)’로 나누었다. ‘외국’ 조에는 안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라오스, 유구, 수마트라, 점성, 섬라,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서로 나가면서 방글라데시, 실론 등 인디아 지역을 거쳐, 서남아시아, 유럽의 나라들까지 서술하고 있다. 유럽 나라에서는 특히 ‘영국(永結利國)’과 ‘포르투갈(佛浪機)’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이 두 나라는 이때 이미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수광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이수광은 포르투갈의 위치를 태국의 서쪽이라 하고 있으니 유럽의 포르투갈이 아니라 1511년부터 말라카를 근거지로 하고 있던 포르투갈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수광의 분류법에서 ‘외국’은 일본만 제외하고는 모두 서해바다를 타고 내려가 남지나해를 거쳐 인도양을 지나 유럽으로 가는 동서 해상 교역로선상의 나라들이다. 북방 제 민족 및 내륙 국가들은 ‘북로’ 조에 두고 있다.

국명과 관련해 나오는 단어는 안남(安南), 월상(越裳), 구진(九眞), 광남(廣南), 교지(交趾)이다. 이수광은 각 시문에서 이 단어들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베트남의 역사 및 정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맨 마지막의 배울십운에서는 백월(百越)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백월은 고대 양자강 유역부터 홍하 델타에 이르기까지 거주하던 민족군을 지칭하던 중국 측의 용어였으니, 이수광은 백월과 베트남의 관련성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의 지리적 환경을 언급하면서, “경계는 야만인의 무리들로부터 갈라졌고(界割群蠻表), 바람은 백월의 무리들과 접한다(風連百越偏)”(『芝峰集』, 77, 시문 9번<sup>8)</sup>)라 하고 있다. 주변의 ‘야만인의 무리들’에 접하고 백월과 연결된 베트남의 민족, 지리 환경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야만의 무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베트남 남쪽에 있던 참파나 캄보디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베트남이 포함하고 있던 수많은 종족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베트남을 남쪽의 만인들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 다음으로, ‘월상’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표현인지 보도록 하자. 이수광은 “[안남은] 주나라에 공물을 바친 옛 월상이니(貢獻周家舊越裳)”(『芝峰集』, 76, 시문1번) “일찍이 흰 꿩을 주왕에게 바쳤다(曾將白雉獻周王)”(『芝峰集』, 77, 시문 7번)고 했다. 월상은 고대 호손국(胡孫國)을 다스렸고 주공(周公)에게 흰 꿩을 바쳤다는 월상씨(越裳氏)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베트남인의 직접적 선조는 아니다. 이 월상은 현 베트남 중부에 있던 싸 후인(Sa Huynh) 문화의 주인공으로 추측되며 베트남보다는 참파(Champa)와의 역사적 연계성이 강하다(최병욱 2006b: 56).

그러면, 이수광이 베트남을 ‘월상’의 땅이라 인식한 것은 착오였을

8) 시문 일련번호는 『芝峰集』 내 기재 순서대로 필자가 매긴 것임.

까? 착오라기보다는, 베트남의 지배 영역이 이미 월상 지역까지 확대 되었음을 이수광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수사적 표현(시에 서의 운을 고려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는, 이수광이 ‘광남(廣南, Quảng Nam)’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남은 중부 후에(Huế) 이남의 넓고 기름진 땅으로서 과거 월상의 근거지로 지목되는 곳이다. 1558년 응우옌 호앙(Nguyễn Hoàng, 阮潢)이 일족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독립 정권을 세운 뒤 중국 및 일본, 한국에 응우옌 씨 일족은 ‘광남 완씨’, 이들의 나라는 ‘광남국’이라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광남은 옛 월상의 지역에 있었으므로 베트남을 일러 ‘옛 월상’이라 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 이수광의 창화시에 이런 이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광남은 궁벽한 곳으로서 매우 더운 땅인데 [...] 예로부터 산천은 구리로서 경계를 삼았지만, 오늘에 이르러 풍속은 월상의 것에 닿았다(廣南窮處是炎鄉 [...] 從古山川銅作界, 至今風俗卉爲裳)”(『芝峰集』, 76, 시문 5번)고 쓰고 있다. 여기에서 구리로서 경계를 삼았다는 것은 과거 후한의 마원(馬援) 장군이 베트남의 반란을 진압하고 구리 말뚝을 박아 중국의 경계임을 보였다는 고사를 이 름이다. 그런데 현재는(16세기) 풍속이 월상의 것이 될 정도로 베트남의 영역이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교지(交趾)’와 ‘구진(九眞)’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지명은 한 무제(武帝, 141-87 BC) 때 일남(日南)과 더불어 베트남 북, 중부에 걸쳐 설치된 군명(郡名)들이었다. 대표적인 군은 홍하 델타의 교지로서 베트남을 지칭하는 단어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구진은 현 타인 호아(Thanh Hóa 淸化)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군이었으며 가장 남쪽으로 일남이 있었다. 이수광은 교지와 구진을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고, 둘 다 베트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 풍극관에게 “듣건대 닁의 집은 구진에 있다 하니(聞君家在九眞居)”(『芝峰集』, 76, 시문 2번)<sup>9)</sup> 라 하기도 했다가 같은

시에서 곧 “[구진은] 꿩을 바치기 위해 야만의 샛길을 건너왔다(來因獻雉通蠻徼)” 하며 구진을 월상의 고사와 연계시키고 있다. 또 다른 시문에서 “교지는 바람과 연기가 독특한 지역이라(交趾風煙別一鄉)”(『芝峰集』, 77, 시문 7번) 했다가, 같은 시 다음 구(句)에서 이 교지가 “일찍이 주왕에게 흰 꿩을 바쳤다(曾將白雉獻周王)”고도 하고 있으니 그는 교지, 구진, 월상을 동일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수광의 착각일까?

그렇지 않다. 교지와 월상을 혼용하는 것은, 이수광이 살았던 당시까지도 안남을 (이미 월상 지역까지 확대된) 교지라 부르던 관행 때문이라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10세기에 베트남이 독립한 이후에도 한동안 중국은 베트남 황제를 교지군왕(交趾郡王)이라 봉하고 부른 것이라든가 1402년에 명나라가 베트남을 정복하고 내지화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지역이 다시 교지가 되는 것을 보면(최병욱 2006a: 288), 교지란 용어의 생명력이 매우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지와 월상을 함께 쓰는 것은 풍극관도 마찬가지였다. 풍극관과의 문답록에도 이수광이 “옛날의 월상과 교지가 귀국의 강역입니까(古之越裳交趾是貴國疆域否)?”라 묻자, 풍극관은 “그렇다(是也)”(『芝峰集』, 79, 問答)고 동의해 주고 있다. 단지 구진에 대한 이수광의 이해가 다소 모호했던 것은 사실이다. 풍극관에게 구진에 사느냐고 물었을 때는 구진을 베트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꿩을 바치기 위해 야만의 샛길을 건너왔다고 했을 때는 구진을 월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수광이 당시 조선인으로서 생소할 수밖에 없는 구진이라는 명칭을 자꾸 사용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베트남에 대한 이수광의 시문에는 베트남을

9) 풍극관의 고향은 하노이에 가까운 산서성(山西省) 석실(石室) 현으로서 굳이 구분하자면 교지 영역이었다.

지칭하는 명사로서 백월, 월상, 교지/구진, 안남, 광남이 다 출현하고 있으니, 그는 베트남 역사 속에 차례로 등장하는 대표적 국가 및 지역 명칭은 다 꺾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구진의 경우처럼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베트남 역사를 구성하는 나라 명을 다 파악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정성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단지, 『大越史記全書』(15세기 편찬) 같은 베트남의 대표적 역사서에 나오는 문랑(文朗, Văn Lang)이나 구락(甌雒, Âu Lạc) 등의 명칭이 나오지 않은 것은, 베트남에 대한 이수광의 지식이 전적으로 중국 측의 기록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의 시문에서 “[베트남의] 풍속은 일찍이부터 지리서에 전해진다(風俗曾傳地誌書)”(『芝峰集』, 77, 시문 8번) 했는데 ‘지리서’란 중국의 지리서들을 지칭함이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책들을 보고 베트남을 공부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이 아쉽다.

국명 또는 공식적 지역 명칭은 아니지만 ‘교남(交南)’(『芝峰集』, 77, 시문 9번), ‘남향(南鄉, \* 조선을 지칭하는 東國에 대비해 사용했음)’(『芝峰集』, 76, 시문 3번), ‘장려향(瘴癘鄉)’(『芝峰集』, 76, 시문 1번), ‘염주(炎州)’(『芝峰集』, 76, 시문 2번) 등의 표현도 있다. 지리, 또는 기후를 반영하는 단어들이다.

국가 및 경계와 관련해 이수광은 마원의 구리 말뚝(銅柱)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 대에 동주를 처음 세워 봉했다(提封漢代新銅柱)”(『芝峰集』, 76, 시문 1번)거나 “옛부터 산천은 구리로 경계를 삼았다(從古山川銅作界)”(『芝峰集』, 76, 시문 5번), “구리 표지는 한나라 역사의 기록이다(銅標漢史編)”(『芝峰集』, 77, 시문 9번) 등이다. 이수광은 풍극관과의 문답록 속에서도 “북과장군 마원의 동주는 어디에 세워졌는가(馬伏波銅柱豎在何地)”(『芝峰集』, 86, 問答)라 묻고 있다. 이수광이 배울 시문에서 베트남의 기후를 언급하며 “물이 독하니 날아가는 소리개가 떨어진다(水毒跣飛鳶)”(『芝峰集』, 77,

시문 9번) 한 구절은 마원이 베트남 원정 초기에 고전할 때의 상황을 회고하며, “[교지 땅의] 독한 기운이 진하게 피어오르는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나르던 소리개마저 물로 떨어지더라(毒氣重蒸仰視飛鷲跼跼墮水中)”(『後漢書』, 839)고 회상한 『後漢書』, ‘마원열전’ 구절 속에서 따왔음이 분명하다. ‘마원열전’은 현재도 베트남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사료이며, 구리 말뚝의 위치 문제는 베트남 역사 연구자들에게 아직도 비정하기 만만치 않은 연구과제이다.<sup>10)</sup>

### Ⅲ. 물산

베트남에 대한 이수광의 인상은 ‘풍요로움’이란 단어로 요약될 수 있겠다. 베트남의 온화한 날씨와 다양한 물산에 대한 그의 기록은 대체로 실제와 일치한다. 이수광은 종종 베트남이 무덥고 독기가 강한 야만의 땅이라는 인식도 내비친다. 앞서 소개한 “물이 독하니 날 아기는 소리개가 떨어진다”도 이런 인식을 대표하는 구절이다. 이런 베트남상은 중국 측 관찬 사료의 베트남 기술에서 자주 나타나는 편견 및 왜곡으로서, 주로 전쟁 패배를 합리화 하는 변명에서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마원열전’의 소리개 운운도 교지의 토착 지도자 쩡자매의 주도로 일어난 반란 평정에 파견된 중국 측 장군들이 줄줄이 실패하자, 마지막 카드로 마원이 진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지만,

10) 이수광의 질문에 풍극관은 “예전부터 전하길 매령에 있다 하였으나 지금은 없다(古傳在於梅嶺今無矣)”고 대답하고 있다. 『芝峰集』, p. 80 (問答). 동주의 위치 및 건립 시기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흥미로운 것은, ‘마원열전’은 물론이고 『후한서』 어디에도 마원이 동주를 세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동주의 위치 및 기원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한 리암 켈리(Liam Kelley)는 이 얘기가 『뚝서』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만 발견했을 뿐이다. Liam Kelley, *Beyond the Bronze Pillars: Envoy Poetry and the Sino-Vietnamese Relationship*,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p. 6-7.

그 역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형편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술이다. 베트남은 무더위와 독기가 가득한 땅이라는 한국인의 인식은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매우 강한 베트남상이다. 이수광이 이런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듯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베트남을 기후가 온난하고 물산이 풍부한 나라로 파악하고 있다. 현지에 가지 않고도 베트남인과의 인터뷰와 지저서의 편린을 통해 현지의 실체를 포착해 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배울 시문에서 이수광에 의해 묘사되는 베트남의 기후는 다음과 같다. “땅의 기운은 봄이 되기 이전에 따스하고 매화는<sup>11)</sup> 선달그름이 채 되기도 전에 곱다(地氣先春暖, 梅花未臘妍).”(『芝峰集』, 77, 시문 9번) 여기에서 혹독한 겨울이 없는 땅의 기운과 그 위에 피어나는 고운 매화의 자태는 현재에도 설 즈음이면 볼 수 있는 매우 전형적인 베트남 풍경이다.

코끼리가 이수광의 관심을 끈 것은 당연했다. 이 땅에서는 말 보다 훨씬 크고 비싼 “코끼리를 시골 아이도 부린다(象自村童驅)”(『芝峰集』, 77, 시문 9번)고 했다. 이는 시적 과장이다.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에 아무리 코끼리가 많아도 시골 아이들 차지가 될 만큼 흔하지는 않고 코끼리도 아무나 부릴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수광이 이 글을 쓴 뒤 약 50여년 뒤 베트남에 표류했던 제주도민들의 관찰에 의하면, 코끼리가 논밭머리에서 돌아다닌다고 했으니(최병욱 2001: 200), “시골 아이도 코끼리를 부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코끼리가 있으면 당연히 값비싼 상아도 생산될 터였다. 이수광은 “기묘묘한 산에서는 코끼리 뼈[상아]가 흔하게

11)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매화라기보다는, 북베트남의 설을 장식하는 ‘호아 다오(복숭아꽃의 일종)’일 것이다. 리 쑤언 쑤은 풍극관이 베트남 설 풍속을 이야기 하며 ‘호아 다오’를 언급했지만, 이수광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매화로 이해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Lý Xuân Chung, 앞의 글, p. 62. 그러나 남베트남에서는 ‘호아 마이(매화)’가 설 무렵의 베트남 땅을 치장한다.

난다(山出異形饒象骨)”(『芝峰集』, 76, 시문 1번)고 적고 있다.

코끼리에 대한 언급에 바로 연해, “땅에서 피어나는 영험한 기운은 용뇌향을 생산한다(地蒸靈氣產龍香)”(『芝峰集』, 76, 시문 1번)라든지 “향은 상인들의 배에 실려 다닌다(香隨賈客舡)”(『芝峰集』, 77, 시문 9번)는 표현으로써 향이 베트남의 주요 산물임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풍극관의 거소를 방문할 때면 맡아지는 백선향이 인상적이었는지 “신선 같은 객의 황금 향로에서는 백선향이 피어오른다(仙客金爐白線香)”(『芝峰集』, 76, 시문 5번)는 구절을 넣어 풍극관에게 주는 시를 만들기도 했다. ‘백선향’이란 단어 옆에 이수광은 이것이 ‘안남의 산품(安南所產)’임을 적어 놓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베트남은 침향(沉香, aquila)의 산지로 유명하며, 침향 중에서도 특히 땅 속에 묻혀 있는 기남(琦남<玉+南>, calamba)은 황금에 버금가는 보물이다. 침향만 해도, 이수광이 풍극관을 만난 지 약 20여년 후에 베트남에서 수년간 살았던(1618-1622) 이탈리아 선교사 크리스토포로 보리(Christoforo Borri 1583-1632)가 “한 배만 싣고 나가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것”<sup>12)</sup>이라던 값진 물건이었다. 이수광은 자신이 풍극관의 『만수경하시집(萬壽慶賀詩集)』에 서(序)를 써주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받은 백선향 100개와 지향(脂香) 한 그릇의 사용법과 효능에 대해서도 ‘후(後)’에 적어놓고 있다(『芝峰集』, 78, 後).

이어서 그는 “[베트남의] 각 가정에서는 8번 실을 뽑는 누에를 친다(家養八蠶眠)”(『芝峰集』, 77, 시문 9번) 했고 풍극관과의 대화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芝峰集』, 79, 問答). 당시 베트남에서 견직 생산이 성하고, 다음 세기에는 동아시아의 국제 무역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적극 참여하면서 북베트남 지역이 견직물 수출지

12) *Views of Seventeenth-Century Vietnam, Christoforo Borri on Cochinchina and Samuel Baron on Tonkin*, Introduced and Annotated by Olga Dror and Keith Taylor, SEAP, Cornell University, 2006, pp. 106-107.

(특히 일본으로)가 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sup>13)</sup> 이수광이 베트남의 주산품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할 수 있겠다. 이-풍이 만난 1597년에 일본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일본 상선에서 일하면서 북베트남을 세 차례 방문했던 진주 선비 조완벽(趙完璧)이 베트남에서는 누에치는 일이 성해서 귀천 없이 모두 견직으로 옷을 해 입는다고 했을 정도로(『芝峰集』, 244, 趙完璧傳<sup>14)</sup>) 북베트남의 양잠 및 견직 제조는 매우 성했다.

또 다른 특산물로 이수광은 물총새(翡翠), 코뿔소 뿔(犀角), 감귤(盧橘) 등을 언급하고 있다(『芝峰集』, 77, 시문 7, 8번). 농사를 모든 산업 중의 으뜸으로 아는 유학자답게 쌀 생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답’에서는 “두 번 익는 벼가 있는가”(『芝峰集』, 79, 問答)를 풍극관에게 묻고 있으니, 베트남에서 2-3기작이 행해진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것이고, 풍극관에게 다시 한 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쌀이 풍부히 생산된다는 사실은 그다지 신기한 것은 아닌지, 창화사에서 쌀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

13) 통킹과 일본과의 견직물 교역에 대해서는 Hoang Anh Tuan, *Silk for Silver*, Brill Publication, Leiden, 2007.

14) 『芝峰集』에 ‘조완벽전’이 있다. 조완벽에 대한 이야기는 매창(梅窓) 정사신(鄭士信, 1558-1619)이 제일 먼저 수집한 것이고 이 사실은 『芝峰集』 중 안남 사신과의 창화시 발문을 쓴 사람 중의 하나인 정사신 스스로가 밝히고 있다(『芝峰集』, p. 82). 그러나 정사신의 『梅窓集』에 실린 ‘조완벽전’과 이수광의 ‘조완벽전’은 다루는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정사신의 기록에는 ‘기이한 이야기’가 많은데 비해(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續 10, 2005, 『梅窓集』, 卷四, 趙完璧傳) 이수광의 것은 사실적 내용이 많아 사료적 가치가 훨씬 높다. 기술 분량으로만 보면, 이수광의 것이 1/3 가량 더 많다. 정사신이 들려주는 베트남 이야기는 ‘조완벽전’ 전체의 반이 조금 못미치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베트남에서 읽혀지고 있던 이수광의 시문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수광의 ‘조완벽전’에서는 대역섯 줄의 배경 소개 후에 바로 베트남에 대한 소개가 시작된다. 조완벽의 필리핀행 기술도 정사신의 ‘조완벽전’에서는 찾을 수 없다.

#### IV. 인물 및 풍속

이수광은 옥하관에서 50여 일간 베트남인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특히 ‘후(後)’에서 베트남인의 외양 및 습관, 습속 등과 관련된 중요 요소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인물의 외양 및 습관이다. 이수광은 “그 [사람들의] 형상은 모두가 눈이 우묵하고 키가 작은데, 흑 원숭이와 닮기도 하였으나 성격은 자못 따스하고 순하며 질박하다(其狀率皆深目短形或似獼猴之樣其性頗溫順略)”(『芝峰集』, 78, 後)고 했다. 그가 살펴본 베트남인들이 “치이는 검게 물들이고, 머리카락은 풀어 길게 늘어뜨렸는데 [...] 궁궐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지만 퇴궐하면 곧 벗어 버린다 [특히 풍극관을 이렇게 묘사함]”(『芝峰集』, 78, 後) 하였으니, 밖에 다닐 때는 옷 입는데 단정하되 집 안에서는 매우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는 베트남인 지식인의 현재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수광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 식, 주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풍극관이 입은 넓은 소매를 가진 긴 옷(면포로 만들었다 함), 어깨까지 내려뜨리는 두건, 사신들을 따라온 하인들은 짧은 옷에 맨발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의 복장에는 견직물(綾絹)이 많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있다(『芝峰集』, 78, 後).<sup>15)</sup>

식습관은, 우선 베틀 씹기가 이수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음식은 중국인과 같으나, 깨끗하지 못하였다(其飲食略如華人而不精潔)”(『芝峰集』, 78, 後)고 적고 있다. 단지 이 부분

15) 흔히 중국 측 기록에서는 ‘맨발’이란 것이 ‘야만적인’ 풍습의 상징처럼 기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수광의 기록에는 그런 편견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맨발인 그들이 “비록 겨울이라도 버선을 신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경외심까지 느껴진다. 아시아의 맨발 습관에 대해 서양인들의 편견도 대단했는지, 이를 반박하는 입장에 있던 크리스토프로 보리는 베트남의 맨발 풍속이 얼마나 위생적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Views of Seventeenth-Century Vietnam, Cristoforo Borri on Cochinchina and Samuel Baron on Tonkin*, pp. 116-117.

은 이수광의 관찰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깨끗하지 못하였다’라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짐작이 가지 않고, 더군다나 왜 ‘음식은 중국인과 같다’고 했는지도 궁금하다. 북경 지방 중국인의 주식이 밀이고, 베트남인의 주식이 쌀인 것만도 큰 차이인데다가 베트남 음식은 비교적 기름기가 없으니 말이다.

주거는, 그들이 옥하관에서 함께 지냈을 터이니 조선 측 사절과 차이가 날 리 없겠지만, 이수광은 베트남인이 반드시 침상(寢床) 위에서 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芝峰集』, 78, 後). 침상에서 잠을 자는 것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베트남인의 습속이다.

이 외에 이수광은 베트남인들이 “검술 연마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들의 검법이 독특해서 당시 중국과 조선에서 유행하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법과 다르니 군관들을 시켜 배우게 해 보았지만 비밀에 부쳐 가르쳐주지 않더라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芝峰集』, 78, 後). 또 그가 만난 베트남인들이 모두 한자를 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이 한자를 안다는 것은 기실 특별한 일은 아닐 것이고 그보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인이 쓰고 있던 베트남화된 한자에 대한 언급이다. 호기심 많은 이수광은 이 나라 사람들이 쓰던 “속서(俗書)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속서는] 자획이 매우 이상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니(『芝峰集』, 78, 後), 이 베트남식 한자 체계를 들여다보며 뜻을 해독해 보려 고개를 갸웃거렸을 이수광의 모습이 쉽게 상상된다. 그가 언급한 ‘속서’란 당시 베트남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던 쓰 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풍극관의 학문하는 태도에 대한 언급도 추가된다. “그는 비록 늙었으나 아직도 상당한 정력이 있어, 항상 독서와 필사를 쉬지 아니하였다(其人雖甚老精力尙建常讀書寫冊不休)”(『芝峰集』, 78, 後)고 하는 데서 이국의 노학자에 대한 존중의 염이 배어있다. 70살이 넘는 나이에 베트남과 북경 사이를 오가고 평소에 독서와 필사를 쉬지 않으며,

귀국해서도 15년을 더 살다가 85세로 생을 마감했으니, 풍극관이 보기 드문 건강 및 정력을 가진 인물임은 분명하다.

당시 36세였던 이수광은 기회를 보아 이 노학자와 마주 앉아 궁금했던 것을 묻고 확인했다. 이 대화 내용을 기록한 ‘문답’은 이수광의 일방적 질문과 풍극관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인터뷰 기록이다. 이수광이 숙고하여 준비했을 질문 항목은 총 16개로서, 『芝峰集』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는 필자가 임의로 매긴 것이다.

1. 옛날의 월상교지는 귀국의 강역인가(古之越裳交趾是歸國疆域否)?
2. 대인은 어떤 관직에 있는가(大人何官)?
3. 귀국의 관제와 풍속은 어떠한가(貴國官制風俗何如)?
4. 인재를 취할 때 시부로 하는가, 책론으로 하는가? 무과 시험은 따로 있는가(取人以詩賦乎以策論乎亦有武科不)?
5. 예전에 듣기에 귀국 왕의 성은 막씨라 했는데, 지금은 여씨이니 이는 창업한 주인인가 아니면 변란 후의 혁명인가(舊聞歸國王是莫姓今黎氏乃創業之主耶有何變亂而革命耶)?
6. 여왕이 나라를 몇 년 만에 비로서 다시 찾았는가(黎王失國幾年始復舊物)?
7. 귀국에 도통사가 있다는데, 어떤 관직인가(貴國有都統使是何官職)?
8. 막씨는 막무흠인가(莫氏是莫茂洽耶)?
9. 여왕이 나라를 얻은 것은 반역을 토벌해서인가, 아니면 추대에 의해서인가(黎王得國是討亂逆也抑出推戴耶)?
10. 대인은 막씨 왕조에서 무슨 벼슬을 하였는가(大人在莫氏朝仕爲何官)?
11. 귀국의 겨울은 봄처럼 따스하고 눈/얼음이 없다던데 사실인가(貴國冬暖如春無氷無雪云信否)?
12. 귀국에는 두 번 익는 벼가 있고 여덟 번 누에 쳐서 실을 얻는다는데

사실인가(貴國有再熟之稻八蠶之絲信否)?

13. 귀국의 땅 크기는 얼마인가(貴國地方幾許)
14. 귀국은 운남과의 거리가 몇 리나 되는가(貴國距雲南幾里)?
15. 유구 및 일본과의 거리는 몇 리인가(距琉球日本幾里)?
16. 북과장군 마원의 동주는 어느 곳에 세워졌는가(馬伏波銅柱豎在何地)?

이상의 문항에는 베트남의 역사, 정치, 제도, 지리, 물산, 기후 등의 요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풍극관의 답변 중 가장 자세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이다. 이 답변을 읽는 조선 선비라면 한국과 베트남의 학도들이 거의 비슷한 책을 읽으면서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데서 양국 동질감의 극치를 맛보게 될 부분이다. 먼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공자 맹자의 시서(詩書), 예와 악의 가르침, 당나라 송나라 진사 및 과거를 위한 글을 익힌다(習孔孟詩書禮樂之教唐宋進士科舉之文).”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과거를 통해 사람을 얻는 방법을 말하자면, 향시와 회시가 있다. 향시에서는 제 1장에서 사서오경 각 1통, 제 2장에서는 조제표문 각 1통, 제 3장에서는 시부 1통, 제 4장에서는 고금의 치도에 관한 책문 짓기가 있다. 회시에서는 제 1, 2, 3, 4 장은 향시와 동일하나 제 5장에서는 궁정에서 짓는 책문 시험이 있다. 무과는 진법을 으뜸으로 하되 기마, 기상, 기사 등의 재주가 있어야 한다. 5년에 한 번씩 치른다(科舉取人法, 有鄉試科有會試科, 鄉試科第一場試五經四書各一通, 第二場詔制表文各一通, 第三場試賦各一通, 第四場策文古今治道一題, 會試科第一第二第三第四場同鄉試, 第五場廷試策對, 武科以陣前爲上, 有騎馬騎象騎射之才, 五年一選).”(『芝峰集』, 79, 問答)

이수광이 가장 많은 질문 문항을 준비한 부분은 막씨 정권과 관련

된 것이었다. 과거제도에 대한 대답과는 달리 풍극관은 짤막짤막하게 대답하지만 이수광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특히 집요했다. 막-여의 정권 교체 과정<sup>16)</sup> 및 막씨가 중국으로부터 임명받은 관직명인 도통사에 대해 질문하고, 막무흡<sup>17)</sup>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과시하다가,<sup>18)</sup> 여조의 정통성에 대한 확인까지 한 연후에 최후에는 풍극관에게 막씨를 위해 무슨 관직에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대목은 30대의 조선 사신이 70대의 베트남 사신에게 하는 질문치고는 당돌하기까지 하다. 이 질문에 풍극관은 “어리석은 이 늙은이는 여씨의 옛 신하지, 막씨를 섬긴 적이 없다(愚老是黎氏遺臣未嘗仕莫)”(『芝峰集』, 79, 問答) 고 점잖게 대답하고 있다. 풍극관은 부득이 찬탈자 막의 지배기에 과거에 합격하긴 했지만, 막씨에 봉사하는 것을 피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면모가 이수광으로 하여금 풍극관에 대해 더 큰 호감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친근함이나 존중심은 상대국에 대한 기술에서 훨씬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한다.

‘문답’이 날 것 그대로의 인터뷰 조사 자료라면, ‘후’는 세심한 관찰 기록장이다. 지속적으로 운을 맞추어 나가며 써야 하는 창화시는 인터뷰와 관찰, 그리고 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한데 버무려 만든 고도의 문학 작품이자 역사지리지였다 할 수 있겠다.

16) 1428년에 수립된 여씨 정권은 백년 뒤인 1527년 막등용(莫登庸)에 의해서 찬탈되었다. 이를 막 왕조라 한다. 그 뒤 여씨 왕조 부흥 세력에 의해서 1592년 막씨가 축출되었다. 막씨 잔여 세력은 중월 국경지대로 달아났고 여 왕실의 명맥이 다시 이어졌다. 풍극관이 북경에 온 이유는 막-여 정권 교체 경과를 알리고 여 왕실이 베트남의 합법적 정권임을 인정받고자 함이었다. 이수광은 이 과정에서 풍극관 거취가 매우 궁금했던 듯하다.

17) 막씨 정권의 5번째 왕. 1562-92 사이 왕위에 있으면서 중국과 빈번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수광에게 익숙했던 것 같다.

18) 막무흡의 이름까지 대는 데에 대해서는 이수광 스스로도 대견했던 것 같다. 이 질문에 대한 풍극관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신이 [풍극관]이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오래도록 [나를] 바라보다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막무흡은 그의 옛 왕의 성명인데, [내가] 그것을 아니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다.” 『芝峰集』, 79, 問答.

## V. 맺음말

이수광이 풍극관에게 전한 시문 9편 및 ‘후’ 그리고 ‘문답’은 16세기말-17세기초 해외의 정세에 목말라 하고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였다. 필자는 이 자료들의 내용을 국명과 역사, 물산, 인물과 풍속 등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베트남을 가리키는 말로서 안남, 월상, 구진, 광남, 교지 등이 골고루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 없는 혼용 내지는 착오가 아니라 베트남 역사 전개상의 변화상과 맞물려 있는 용어 선택이었다. 무엇보다도 이수광이 고대의 월상으로부터 최근의 안남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국명을 파악하고 있음은 놀랍다. 베트남 역사서 속에 나오는 반 랑이나 어우 락 등의 명칭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는 그의 베트남 역사 공부에 중국 측의 역사, 지리지에 의존한 바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수광이 소개하는 베트남의 물산에는 코끼리 및 상아, 용뇌향, 견직물, 비취, 서각, 감귤, 미곡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그가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물산은 견직물이었다. 왜냐하면, 견직물이 당시로서는 가장 베트남 고유의 물자였기 때문이다. 상아나 비취, 서각 등은 굳이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생산되는 물자였다. 코끼리는 질로 치자면 라오스 것이 더 뛰어나며 비취는 캄보디아산이 유명했다. 이에 반해 견직물 생산업은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수광이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

인물을 논할 때 이수광이 베트남인을 일러 “눈이 우묵하고 키가 작은데, 혹 원숭이와 닮기도 했다”라 한 것까지만 보면, 그 역시 다르게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원숭이’ 운운하는 한국인의 습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듯하다. 가까이는 일본인으로부터 서양인에 이르기

까지 중국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원숭이 닮았다’고 치부하는 안이한 외국인 인식 방법론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성격은 자못 따스하고 순하며 질박하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서 ‘원숭이’ 운운으로부터 훨씬 진전된 대인 인식 방법이 드러난다. 외양뿐만 아니라 의, 식, 주 등에 대한 관찰도 자세하다. 풍극관의 정력적인 학문 태도와 수행 무관들의 오묘한 검법에 대한 기술은 상호 조율하면서 베트남인이 보지한 문무 양면의 우수성을 부각시킨다.

창화시문, 후기, 문답 세 가지 유형의 기록 중에 인간의 육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문답이다. 이 문답은 총 16개에 이르는 이수광의 질문과 풍극관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흥적 문답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다양한 문항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베트남의 역사, 정치, 제도, 지리, 물산, 기후 등이 골고루 각 문항에 배분되어 있다. 30대 이수광의 적극적 질문과 70대 풍극관의 진지한 응대 장면은 양국 지식인 간의 나이를 초월한 동업적 유대감의 형상화에 다름 아니다.

일찍이 김상기 교수가 이수광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동남아제국인과 교제하여 이 여러 나라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채록한 것은 전에 없던 사례로서 특필할 만한 것”(『芝峰集』, 3)이라 한 바 있다. 가히 이수광은 한국에서 ‘베트남학’의 선구라 칭할 만하다. 게다가, 1611년에 세 번째로 북경에 갔을 때는 태국의 사절단을 만나서, 베트남만큼 자세하지는 않아도 매우 심도 있는 태국(暹羅國) 소개 글을 써냈다는 것과(『芝峰集』, 86-88)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참파(占城), 라오스(老撾國, 혹은 ‘哀牢國’), 캄보디아(眞臘國), 말라카(滿刺加), 자바(爪哇)에 대해 소개하고 동남아시아의 고대국가 푸난(扶南)과 스리비자야(三佛齊)까지 언급하고 있으니 이수광은 ‘동남아시아학’의 선구자라고까지 할 만하다. 현재의 동남아시아 10개 나라 중 그의 관심을 피해 간 나라는 버마, 싱가포르, 부르네이,

필리핀 등 4개 나라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19세기에 형성된 나라이니 이수광이 알 리가 없고, 브루네이는 그의 시대에 존재가 미미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을 두지 않았으나 그가 ‘조완벽전(趙完璧傳)’을 입수했고 그것을 소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면, ‘조완벽전’에 나오는 조완벽의 여송(呂宋) 즉 필리핀 방문 전말을 통해 이 나라도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 단지 버마(당시 퐁구 왕조)만이 빠져 있을 뿐이다. 대신에 그는 동남아시아 고대 국가인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 인도차이나의 참파 및 푸난에 더해 16세기부터 동남아시아 역사의 한 식구가 되는 포르투갈(佛浪機)까지 소개하고 있으니 동남아시아의 11개 나라를 조선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중 베트남과 관련된 기술이 양과 질에서 압도적이며 이수광의 세계 인식 확대를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수광은 베트남의 역사 및 정치 변화를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으며, 베트남의 주요 물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자신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습득한 직접 지식을 전달하고 있음은 말 그대로의 ‘실학(實學, study of reality)’적 태도의 전범이다. 그가 전하는 정보에는 “~라 하더라”거나 “~라 들었다”라는 내용의 것은 없다. 박희병이 지적한대로 베트남에 대한 기술이 이수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서호수(徐浩修, 1736-1799), 유득공(柳得恭, 1749-1807),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이규경(李圭景, 1788-?), 황윤석(黃胤錫, 1729-1791), 정동유(鄭東愈, 1744-1808) 등의 18-19세기 실학자들에게로 이어졌으니,<sup>19)</sup> 조선시대 베트남에 대한 관심 및 연구는 실학의 계보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은 조선 지식인의 세계 인식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실학자들의 실증적 학문 방법론의 적용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실학의 베

19) 박희병, “조선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2007), pp. 124-129. 정약용도 베트남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윤대영, 『한국과 베트남의 문명교류사』 (초고).

트남상이 만들어지던 자리, 더 넓게는 조선의 실학적 방법론이 태동하던 그 자리에 풍극관, 이수광, 그리고 옥하관이 있었다.

**주제어:** 이수광, 풍극관, 옥하관, 창화시, (베트남) 물산,

### 〈참고자료〉

- 『江華崔氏世譜』. 江華崔氏大同譜所. 충남연기군조치원. 1997.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續 10, 『梅窓集』. 2005.  
박희병. 2007.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 베트남 관계사 국제심포지움 발표집』 하노이.  
『英祖實錄』 (<http://sillok.history.go.kr>).  
윤대영. 2009. 『한국과 베트남의 문명교류사』 (초고).  
『芝峰類說』. 景仁文化社. 1970.  
『芝峰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  
최병욱. 2001. “17세기 제주도민들이 본 호이 안 (Hội An 會安)과 그 주변.” 『베트남연구』 2.  
\_\_\_\_\_. 2006a. “중국 역대 왕조의 베트남 인식 - ‘25’를 통해 살펴봄.” 『북방사논총』 11.  
\_\_\_\_\_. 2006b. 『동남아시아 - 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최상수. 1966.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 한월협회.  
『太宗實錄』 (<http://sillok.history.go.kr>).  
『後漢書』. ‘馬援列傳’. 景仁文化社. 1978.  
Hội Khoa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베트남역사과학회). 1997. *Người Việt Nam ở Triều Tiên và Mối Giao Lưu Văn Hóa Việt-Triều Trong Lịch Sử* (조선의 베트남인과 역사 속에서의 베트남-조선 문화

교류). Hanoi: Viện Thông Tin Khoa Học Xã Hội.

Kelley, Liam. 2005. *Beyond the Bronze Pillars: Envoy Poetry and the Sino-Vietnamese Relationship*.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Lý Xuân Chuông. 2004. "Về Thơ Văn Xương Họa Giữa Các Sứ Thần Việt Nam-Hàn Quốc Trong Lịch Sử (베트남-한국 사신 간의 창화 시문에 대하여)." 『한국학과 베트남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베트남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집.

*Views of Seventeenth-Century Vietnam, Cristoforo Borri on Cochinchina and Samuel Baron on Tonkin*. Introduced and Annotated by Olga Dror and Keith Taylor. Ithaca: SEAP, Cornell University, 2006.

(2009. 7. 28 투고; 2009. 9. 15 심사; 2009. 9. 28 게재확정)

<Abstract>

## Vietnam in the Eyes of Lee Soo-Gwang, 1597-1598

Choi Byung Wook  
(Inha University)

Among the historians both in Korea and in Vietnam, Lee Soo-Gwang has been well known for his long term contact with a famous Vietnamese scholar Phung Khac Khoan in Beijing during the years of 1597-1598. As the members of official mission to China from each country, Lee Soo-Gwang and Phung Khac Khoan stayed together in the royal guest house called Ok Ha Gwan (Ngoc Ha Quan in Vietnamese pronunciation) for several months. During this stay the two scholars exchanged many poems that have been left until now both in Korea and in Vietnam. Lee Soo-Gwang left bunch of records on his meetings with Phung Khac Khoan in his literature collection, *Chi Bong Jip* and *Chi Bong Yu Seol*.

This article examines Lee Soo-Gwang's records including poems, essays, and interviews in the historical context. Lee's writings are full of the historical evidence on the various aspects of Vietnam. In other words, those writings were valuable information about Vietnam to the Korean intellectuals at that time. Especially his poems were the treasure bowls of his knowledge on Vietnam.

In the main body of this article, three issues are discussed. First is about the state titles of Vietnam. Second is the important products. Third is about people and custom. By the analysis of the three issues, author examines how far Lee accumulated information about Vietnam.

As the state titles, Bach Viet, Viet Thuong, Giao Chi, Cuu Chan, An Nam, and Quang Nam were used according to the steps of Vietnamese history. Lee Soo-Gwang's fluent handling of these state titles is a clear evidence that he had collected enough information on the history of Vietnam.

Lee Soo-Gwang's image on Vietnam in terms of local products can be summarized as the 'richness.' He mentions warm and cozy weather, trade, and abundant local products such as rice, elephant tusk, rhinoceros horns, aquila, calamba, and silk. Especially, the silk attracted Lee very much as the main product of Vietnam for export.

During his stay in the Ok Ha Gwan, Lee had enough chance to closely observe the members of the Vietnamese mission. By the observation at this time, he provides us with the basic features of the personalities and the way of living of the Vietnamese including Phung Khac Khoan. Furthermore, he conducted a kind of interview with Phung Khac Khoan on the matters of Vietnamese history, culture, politics, products, geography, and so on. By Lee's information, the outlooks and the personalities of the Vietnamese in the end of the 16th century can be understood in a clearer form, and Vietnamese society can be imagined in a more concrete way.

Lee Soo-Gwang's descriptions on Vietnam are not based on hearing, but on the substantial readings, observations, and interviews. His way of descriptions is the example of an initial work amongst the products of

Korean *silhak* (study of reality) tradition that lasted to the 19th century. Lee Soo-Gwang can be regarded as the first Korean scholar who seriously studied Vietnam in Korea. In other words, Vietnam was standing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silhak* study.

**Key words:** Lee Soo-Gwang, Phung Khac Khoan, Ok Ha Gwan (Ngoc Ha Quan), products (of Vietnam)